

# 호암사 가족 22명 특별한 봄맞이

## 유치원·중학교 입학... 신학기 준비로 '술렁'



◁따뜻한 봄햇살이 쏟아지는 저마밭에 호암사 주지 현종스님을 비롯 가족 22명이 모였다.

상주 호암사(주지 현종)의 3월은 특별하다. 6살 난 영국이와 7살 제빈이, 성조가 이안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입학 앞두고 있는 데다, 문수는 합창중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호암사에는 초등학생 7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 등 유치원생까지 합쳐 학교에 다니는 인원이 16명에 이른다. 대가족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현종스님과 공양주 보살, 정신지체로 보호가 필요한 언니 오빠까지 호암사의 가족은 모두 22명.

호암사를 들어서자 마당에서 놀

### 아버지 현종스님 "유치원 입학 두 녀석 몸 약한데..."

고 있던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유치원 입학 앞둔 제빈이와 성조는 좁은 마당에서 축구에 한창이다. 11년 전, 토글터를 찾아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현종스님은 초라한 토굴 앞에 버려진 아이를 맡아 기른 것이 인연이 되어 대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노릇을 시작했고 조용한 참선 정진의 꿈은 저만치 날아갔다. 영국이, 제빈이, 성조도 첫 돌이 막 지났을 때부터 키워 어느새 유치원 입학 앞두고 있다.

7일로 다가온 유치원 입학 앞두고 스님은 생각이 많다. 유독 병치레가 잦았던 성조와 워낙 굶주린 상태로 맡겨져 하체가 약한 영국이가 유치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평범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 얼마 전 있었던 문수 졸업식은 물론, 아이들의 입학과 졸업에는 빠지지 않는 스님이지만 승복을 입고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

◁아버지 현종스님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성조와제빈이.

님을 알기 때문이다.

"벌써 유치원에 간다고 하니, 한 밤에 병원 응급실에 오가며 속태웠던 생각이 나네요. 반듯하게 자라서 세상의 큰 일꾼이 되어 부처님과 후원자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유치원 가는 아이들을 향한 현종스님의 바람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다. 스님은 "장가 보내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보아야 부모노릇 끝나는 것 아니냐"며 "족히 20년은 아이들과 부대끼는 것으로 수행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 생일 등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번에 김밥 100개를 맡아하는 큰살림을 맡고 있는 공양주이 옥연(56) 보살은 "유치원 갈 때 새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이래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보살은 남들처럼 호화롭게는 아니어도 아이들을 구급할 것이 키우고 싶은 욕심은 굴뚝같은데 19명의 아이들 뒷바라지가 수월치 않다고 털어놨다. (054) 541-7863.

천미희 기자

# 영남불교대 뉴욕에 분원 설립

## 우학스님 건물 물색중... 올 하반기 개원 목표

영남불교대학이 미국 뉴욕에 현지분원을 설립한다.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뉴욕에 영남불교대학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학스님은 "미국에 새로 시설을 건립해 종교시설로 등록하기가 쉽

지 않은 현지 사정을 감안, 교회를 인수해 사찰로 개조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마땅한 건물을 물색 중"이라며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200여평의 건물을 마련, 정식 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원하게 될 뉴욕분원의 운영은 영남불교대학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미국 정서에 맞게 다듬어

현지인 포교에 주력하게 되며, 미국에 유학 온 한국의 학인 스님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한인 2세에 대한 한글교육, 다도강좌, 사찰음식 강좌, 참선교실 운영 등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를 마련해 우리문화 보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 "지·수·화·풍의 고마움 되새기자"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감사재 봉행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월21일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재를 열고 고마움을 되새겼다.

흙, 물, 불, 바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지수화풍 감사재가 열려 화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해도는)은 2월21일 법당에서 신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명체의 근원인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행사를 가졌다.

해도스님은 감사재에 앞서 "지수화풍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있지만 지수화풍이 없는 인간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내 생명의 근본이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함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탁에 맞춰 "나무 석가모니불" 정근과 "나무 자성본래불" 정근을 이어가며 동참한 신도들은 지수화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삼배를 올렸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23일 지구무사교 발원재를 열어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천미희 기자

## 법계장학회 설립... 첫 장학금

### 명성스님, 동국대 졸업 학생 등 5명에게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명성스님이 불교학 발전을 위한 법계장학회를 설립했다.

명성스님이 설립한 법계장학회는 2월 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은 동국대 서울과 경주캠퍼스 불교대학, 중앙승가대 수석졸업

자와 대학원생, 유학생 등 학생 5명에게 전달한다.

법계장학회 사무장 석은스님(운문사 교무)은 "학장스님께서 장학회 설립에 원을 세우고 오랜 동안 모은 사재를 털어 장학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시민선방 원각선원 열여섯각스님, 27일 봉불 점안

대구광역시 불교선방단체연합회(회장 박운식)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선사화를 통한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실천해온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이 2월 27일 부산 대연2동(지하철 못골역)

에 도심포교당을 열었다.

도심 포교당과 시민선방을 역할을 겸하게 되는 원각선원은 이날 봉불 점안 및 고산스님 초창법회를 개최했다.

원각선원은 일반불자들을 위한 원각불교교양대학 개설과 참선 지도 등을 통해 불법 포교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051)638-011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경주교육청 앞 원화로 일대 성전사원 봉성사터로 밝혀져

### 위덕대박물관 '봉성' 명문 납석제 뚜껑 발견

통일신라시대 국가와 불교계를 연계하는 관청의 사찰로 알려진 성전사원 봉성사의 위치가 처음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진각종립 위덕대 박물관(관장 김무생)은 지난해 경주시 인왕동 구 경주교육청 앞 원화로의 가로수 교체 작업 현장에서 발견된 지름 7.9cm에 두께 2.1cm의 납석제 뚜껑(사진을

조사한 결과 신라 해공왕 2년인 766년을 가리키는 '영태, 2년, 7월, 봉성, 사야'라는 명문이 발견돼 이 일대가 1,300여년 전 창건된 봉성사 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봉성사는 통일신라시대 8대 성전사원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 신문왕 5년인 685년에 창건돼 당시 관청으로 사용됐던 중요한 사찰



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현재까지 그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고증된 것이다.

박종국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명문의 발견으로 8세기 때의 금석문 연구와 신라왕경 관련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미안마 서포터즈로 활약했던 삼광사주지 도원가 2월 11일부터 6일 동안 미안마를 방문했다.

미안마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부산시민서포터즈 친선방문단 공식환영행사에 참가,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자리에서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푸라 에이 민트 장관에게

## '삼광사 서포터즈' 미안마 방문

### "올림픽 부산유치 협조" 호의적 답변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도원스님을 비롯한 삼광사 신도 18명, 부산불교신도회 회원 3명 등 총 28명은 2월 12일 푸라 에이 민트 미안마 체육부 장관 주회로 열린

불교교류 확대와 오는 2016년 부산의 하계올림픽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호의적인 답변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재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귀신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격적지입니다. 조사님의 훈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 오시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 서해안 고속도로 동관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총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 중 일 통**

## 원로대덕스님과 종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께 삼가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종진스님과 교구 본사 주지스님 중앙총회의원스님과 총무원장 선거인단 스님 그리고 제방의 모든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납의 부덕함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납은 금번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우고자 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오랜 고민속에 나온 지식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사회를 계도하고 수행가풍이 살아 숨쉬는 종단으로 우뚝 세우는데 일조를 해 산문(山門)에 들어선 뒤 받은 불은(佛恩)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했지만 저의 부덕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무원장에 당선되신 법장스님께서서는 종단 안팎으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는 훌륭한 분으로 종단의 제반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신임 원장스님을 도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납 역시 겸허하게 종도들의 뜻을 받들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7년 2월 25일

### 제31대 총무원장 후보 종하 합장